『기독교사회윤리』 제64집
(2026) 467~502

고립 · 은둔 청년의 사회적 장애와 디지털 환대

- 몰트만의 생명 신학과 호주 'Head to Health' 모델의 신학적 대화

홍창현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성과사회와 사회적 장애
1. 성과사회의 인간론
2. 장애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
3. 생명력의 위기로서의 고립과 은둔

III. 몰트만의 생명 신학: 죽음의 문화에서 사귐의 영성으로
1. 성과 중심적 인간론을 넘어서
2.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사귐: 고립을 넘어서는 관계적 존재론
3. 신학적 저항: 안식, 축제, 성소

IV. 호주 'Head to Health' 모델의 신학적 적용과 한국 교회의 과제
1. 성육신적 디지털 환대
2. 디지털 환대의 사례: 호주 'Head to Health' 모델의 신학적 성찰
3. 한국 교회를 위한 실천적 제언: 단계적 환대 모델의 구축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4.15

www.kci.go.kr

• ABSTRACT •

Social Disability of Isolated and Withdrawn Youth and Digital Hospitality

Visiting Professor, Hong, Chang-hyu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redefines the crisis of youth isolation in South Korea's achievement society as social disability caused by systemic barriers rather than individual pathology. It argues that this phenomenon represents a crisis of life force that secular functional models cannot fully capture. Drawing on Jürgen Moltmann's theology of life, the research emphasizes that human worth resides in being rather than doing, utilizing the concepts of Perichoresis and Zimzum to design spaces of hospitality. Based on these foundations, the study proposes a stepped hospitality model, transposing the systemic insights of Australia's Head to Health platform into a theological framework. This model guides individuals from a digital sanctuary of unconditional acceptance through loose online fellowship toward integration into a physical faith community. Ultimately, this approach redefines digital space as a sacral bridge, inviting those excluded by performance-driven standards into the fullness of Trinitarian fellowship.

Key words: Achievement Society, Isolated and Withdrawn Youth, Social Disability, Moltmann, Theology of Life, Stepped Hospitality, Head to Health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고립과 은둔의 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방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명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재난의 양상을 띠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립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청년 인구의 5%에 해당된다.[1] 또한 은둔 청년은 약 24만 4천 명 규모에 달한다. 이러한 지표는 청년 고립 · 은둔 현상이 타자와의 인격적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기제 자체가 무너진 '사회적 장애(Social Disability)'[2]의 영역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고립과 은둔 기간이 장기화된 비율이 약 28%를 넘었다는 수치는[3] 고립과 은둔이 장기화된 실존적 고착 상태에 이르렀음을 방증하며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관계 복원과 환대의 신학적 응답을 요청한다.

본 연구의 논의에 앞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립이란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망이 단절되어 지지 체계가 부재한 관계적 결핍의 상태를 의미한다. 은둔은 고립이 심화되어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며 사회적 교류가 6개월 이상 단절된 상태를 뜻한다.[4] 고립이 관계적 자본의 상실이라는 '내부적 단절'에 방점을 둔다면 은둔은 공간적 격리를 수반하는 '외부적 차단'으로서 고립의 심화된 형태에 해당한다.[5] 본 연구가 주목하는 고립 · 은둔 청년은 이 두 차원의 장애를 동시에 경험

1) 김성아 외, 『고립 ·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세종: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1-2.

2) 본 연구의 '사회적 장애'는 비유적 수사를 넘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고립 현상으로 확장한 실질적 범주이다. 성과 중심 사회의 배제로 인한 고립을 구조적 장벽에 의한 기능적 불능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개인의 병리로 환원하는 의료 모델을 비판하고 존재 자체의 수용을 지향하는 복지신학적 장애학의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위의 책, 8.

4) 오재호, 『청년의 고립 · 은둔, 진단과 대책』(수원: 경기연구원, 2023), 1.

5) 김성아 외, 『고립 ·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41-42.

www.kci.go.kr

하는 주체들이며 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사회 복귀의 강요가 아니라 고립된 실존을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호흡을 회복하도록 돕는 환대의 설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대응은 여전히 물리적 대면을 전제로 한 가시적 활동이나 신앙적 성과를 촉구하는 기존 사역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6] 관계적 역량이 마비된 고립 청년들에게 전통적 공동체 모델은 오히려 부적응을 심화시키고 또 다른 심리적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행위가 아닌 존재를 긍정하는 신학적 전회를 통해 고립된 주체가 안식할 수 있는 신학적 정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본 논문은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생명 신학에 주목한다. 몰트만의 생명 신학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이전에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조한다. 존재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한계와 부족함 속에 고립된 주체가 자신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돕고 생명의 영인 성령을 통해 단절된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론적 전환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7] 특히 하나님의 자기 제한과 비움을 통해 피조물의 거처를 마련하신 침춤(Zimzum)의 원리는 교회가 성육신적 자기 비움을 실천함으로써 고립된 타자를 위한 환대의 공간을 확보해야 할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한다.[8]

---

6) 국민일보, (2024. 11. 25.), "고립 · 은둔 해법은 영적 회복… 교회가 발견 · 사역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2518175, (접속일: 2026. 03. 13.).

7) 김태형, "삶의 희망과 의미 발견에 대한 목회상담적 의의: 몰트만과 프랭클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5-1(2024), 278.

8) 위르겐 몰트만,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서울:

www.kci.go.kr

본 논문은 성과사회의 구조적 배제 기제가 양산한 사회적 장애를 몰트만의 생명 신학적 렌즈로 재구성하여 안식과 축제, 성소라는 대안적 지평을 확보하고 이를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인 'Head to Health' 모델과 접목한 단계적 환대(Stepped Hospitality) 시스템으로 구체화한다. 최종적으로 본 고는 이러한 점진적 접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적 원리를 따라 고립된 실존을 삼위일체적 사귐으로 견인하는 교회의 본질적 소명에 대한 신학적 응답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II. 성과사회와 사회적 장애

1. 성과사회의 인간론

현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공고화된 성과사회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본연의 지위로부터 이탈시켜 업적과 효율의 체계 속에 종속시키는 존재론적 전도를 초래한다. 성과사회는 과거의 규율 사회와 달리 '해야 한다'는 당위의 부정성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무한정한 능력의 긍정성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이 사회에서 주체는 스스로를 경영하는 성과 주체가 되어 자유롭다는 느낌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착취한다. 긍정성의 과잉은 외부의 침입이 아닌 시스템 자체에 내재하는 폭력으로 작용하며 삶의 생동성을 고갈시키고 심리적 경색을 초래한다.[9] 이러한 문법은 기능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경쟁의 속도에서 이탈한 청년 실존을 향해 사회적 불능이라는 낙인을 체계적으로 부여한다.

성과사회의 무한 경쟁 시스템은 효율성을 지향하며 성과 산출 능력이

한국신학연구소, 2007), 35.

9)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21-22; 강수돌, "성과사회, 자기착취, 그리고 피로사회," 「뉴 래디컬 리뷰」 52(2012), 275.

www.kci.go.kr

결여된 존재를 무용(無用)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이 과정에서 고립된 청년은 스스로를 착취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며 사회적 지평에서 배제된 관계적 죽음을 경험한다.[10] 이 지점에서 고립과 은둔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긍정성의 폭력이 주체를 고갈시키고 진정한 환대가 상실된 사회가 구축한 구조적 소외의 결과물이다. 성과를 향한 가속화된 요구는 청년들을 관계적 진공 상태로 고착시킴으로써 이들을 사회적 지평에서 비가시화하는 폭력성을 내포한다.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 활동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맺기와 존재론적 개방성을 본질로 한다.[11] 따라서 성과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관계를 단절하고 물리적 공간 안에 은폐된 청년들의 상태는 생명력의 위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존재들 사이의 유기적 상호의존성을 간과하고 각 구성원을 파편화된 성과 창출의 주체로 고립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

2. 장애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

현대 성과사회가 고립 · 은둔 청년을 대하는 지배적 문법은 이들을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고립을 개인의 병리적 결함으로 국한하는 시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애의 원인을 구조적 장벽과 환경의 모순에서 찾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된다.[12]

---

10) 최성수,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론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모색으로서 안식일 개념에 대한 연구," 「신학논단」 74(2013), 201; 강수돌, "성과사회," 277.

11) 위르겐 몰트만, *Der Geist des Lebens*, 김균진 역, 『생명의 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38.

12) 김진희 · 김용득, "장애 당사자 인식은 의료(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가?: 장애인 실태조사의 관련 변수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1(2023), 206-209.

www.kci.go.kr

의료적 모델에서 고립과 은둔의 원인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귀속된다. 이 틀에서 청년들은 부적응자로 범주화되며 처방은 정상성으로의 복귀를 위한 치료와 교정에 한정된다. 그러나 고통을 개인의 기능적 문제로 환원하는 시각은 주체의 고유한 서사를 파괴하고 진단명 아래 개인을 가둠으로써 사회적 맥락이 소거된 낙인만을 남긴다.[13] 낙인은 고립된 주체로 하여금 사회적 실패를 내면화하게 하며 성과사회의 소외 구조를 더욱 공고히 재생산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학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손상을 지닌 주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장벽의 산물로 정의한다. 이 관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심리적 기제가 아니라 성과와 속도만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환경적 장벽에 있다.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가 안전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낮은 문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14]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환경적 장벽에 의해 사회적 참여가 차단된 상태를 사회적 장애로 규정한다. 이 개념은 신체적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 중심 사회의 기능적 규범을 충족하지 못해 관계적 사귐에서 배제된 상태를 지칭한다. 이는 기존 장애 신학이 다루어 온 신체적, 인지적 장애의 범주를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성과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관계적 참여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환경이 만든 불능이라는 기존 장애 개념의 핵심 논리를 공유한다.

몰트만의 생명 신학적 지평에서 생명은 모든 피조물과의 사귐을 향해 열려 있는 열린 계(Open System)로서의 개방성을 지닌다.[15] 이 관점에서

13) 이신복 · 이새봄, "대학생의 장애 인식이 장애인 관련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의 매개적 역할," 「인문사회과학연구」 33-3(2025), 459-460.

14) 김아래미 · 이해님 · 노혜진, "청년 사회적 고립의 유형화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 52-1(2025), 190-191.

15) 위르겐 몰트만, *Ethik der Hoffnung*, 이신건 역, 『희망의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www.kci.go.kr

사회적 장애는 물리적 고립을 넘어 생명의 근원적 개방성이 구조적으로 닫힌 상태로 해석된다. 청년들이 겪는 고립과 은둔은 사회가 설정한 발달 과업에 도달하지 못한 실존에게 가해지는 조직적 소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해법은 개인의 개조가 아니라 생명의 개방성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공간적, 관계적 전회를 통해 모색되어야 한다.

3. 생명력의 위기로서의 고립과 은둔

현재 시행되는 대다수의 청년 지원책은 심리 상담과 취업 연계를 통한 사회적 복귀에 집중되어 있다.[16] 그러나 이러한 해법은 청년들을 고립으로 몰아넣었던 성과사회의 문법 안으로 다시 밀어 넣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장애의 핵심이 성과를 강요하는 환경과의 불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 시장 재진입 방식은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다. 할 수 있음을 강요하는 긍정성의 과잉은 고립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17] 결과적으로 은둔 청년에게 시급한 것은 성과 능력의 배양이 아니라 어떠한 성취 없이도 실존의 가치를 긍정받을 수 있는 생명력의 회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은 단순한 사회적 낙오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를 강요하는 성과사회를 향한 실존적 저항이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 기제로 재해석될 수 있다. 신학적으로 조명하면,

---

2012), 138.

16) 오재호 · 이지은 · 김태옥,『의정부시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방안 연구』(수원: 경기연구원, 2025); 신상준,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도시연구」28(2025); 서울특별시,『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서울: 서울특별시, 2023); 이상인 외,『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 연구』(서울: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1).

17) 최성수,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론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모색으로서 안식일 개념에 대한 연구,"「신학논단」74(2013), 208.

www.kci.go.kr

이들이 처한 고립은 생명의 영이 흐르지 못하는 폐쇄성의 위기를 상징한다. 진정한 회복은 기계적 기능 복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생명력의 사귐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결국 고립과 은둔은 사귐의 부재에 대한 생명론적 경고이며 개별적 능력이 아닌 관계적 사귐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존재론이 요청된다. 인간 존재를 무엇을 해내는가가 아닌 누구와 사귀는가의 관점으로 전환할 때 존재론적 장벽은 비로소 해체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은 세속적 기능 회복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과사회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전복할 신학적 대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존재론적 사귐을 선포하는 몰트만의 생명 신학은 사회적 장애를 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지평을 제시하는 유력한 이론적 자원이 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몰트만의 생명 신학을 통해 사귐의 영성이 사회적 장애 상태에 놓인 생명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고찰한다.

III. 몰트만의 생명 신학: 죽음의 문화에서 사귐의 영성으로

고립 · 은둔 청년 문제의 해법으로 위르겐 몰트만의 생명 신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신학이 성과사회의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 긍정의 논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업적으로 환원하여 주체를 사회적 장애 상태로 몰아넣을 때, 몰트만의 칭의론은 주체의 공로 이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수용을 선포하며 존재론적 회복의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몰트만 신학은 단순히 이론적 배경을 넘어 기능 중심적 회복 모델에 갇힌 현대 보건 시스템에 신학적 전회를 요청하는 필연적 도구가 된다.

본 연구는 몰트만의 신학적 개념들을 유기적 위계에 따라 재구성하고자 한다. 사회적 삼위일체와 페리코레시스는 고립된 자아를 관계적 존재

www.kci.go.kr

로 규정하는 존재론적 토대가 되며, 침춤(Zimzum)은 타자를 위해 자리를 비워내는 사역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식 · 축제 · 성소의 개념은 성과 사회에 저항하며 실존을 삼위일체적 사귐으로 초대하는 구체적인 환대의 시공간을 구축한다.

1. 성과 중심적 인간론을 넘어서

성과사회가 강요하는 사회적 장애의 질곡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정당성을 행위와 업적에서 찾는 세속적 인간론에 대한 근원적인 신학적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몰트만의 생명 신학은 성과 중심의 율법주의를 해체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긍정 속에 거하는 존재론적 사귐의 주체로 복권시킨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복권의 신학적 근거를 칭의론, 생명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세 축을 통해 고찰한다.

1) 성과사회의 율법에 대항하는 칭의론적 존재론

인간 존엄의 근거는 사회적 승인이라는 가변적 가치가 아니라 창조주의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불변의 토대 위에 구축된다.[18] 그러나 성과사회는 끊임없는 업적 산출을 강요하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실존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부여한다. 현대인이 겪는 신경증적 증세는 성과라는 율법이 가하는 영적 질식 상태로 규정되어야 한다.[19] 따라서 성과 중심의 인간론은 행함(성과)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의 현대적 변용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칭의는 개인의 내면적 구원 교리를 넘어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부터 주체를 해방시키는 사회적, 존재론적 선언으로 확

18) 위르겐 몰트만,『희망의 윤리』, 121-127.
19) 한병철,『피로사회』, 11, 21.

www.kci.go.kr

장된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적 기능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지체로 현존함 자체에서 발견된다.[20] 이처럼 성과에서 존재로 이동하는 칭의론적 전회는 고립 · 은둔 청년의 실존적 마비를 기능적 결함이 아닌 성과사회의 구조적 요구가 낳은 존재론적 소외로 재해석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생명의 영과 존재에 대한 긍정

성과사회의 율법적 요구를 해체하는 동력은 인간의 내면에 국한되지 않고, 육체와 관계, 사회 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영을 통해 구체화된다. 몰트만에게 성령은 생명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과의 압박에 짓눌린 인간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향해 존재론적인 긍정을 응답할 수 있게 하는 해방의 영이다.[21]

생명의 영 안에서의 실존은 자기 착취적 가속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존재 본연의 기쁨인 하나님의 생명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완전한 향유로의 초대이다.[22] 따라서 고립된 청년들에게 요청되는 목회적 응답은 훼손된 사회적 기능을 수선하려는 기능적 재활이 아니라 무너진 존재의 자리에 임하여 생명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생명의 영과의 인격적 조우이다. 이 영적 조우는 인간의 존재적 개방성을 복원하며 닫혀 있던 공간의 경계를 열어 타자와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존적 용기를 부여한다.

---

20)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윤리』, 121.

21) 위르겐 몰트만, *Der Geist des Lebens*,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총체적 성령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9-20.

22)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윤리』, 120.

www.kci.go.kr

3)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관계적 재해석

신학적 인간론의 핵심인 하나님의 형상은 전통적으로 이성이나 통치 능력과 같은 기능적 속성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몰트만은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질을 반영하는 관계적 형상으로 재규정한다.[23] 인간은 홀로 존재할 때가 아니라 타자와의 사귐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 그러나 성과사회는 인간을 고립된 성과주체로 파편화함으로써 이 관계적 형상을 구조적으로 훼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독한 지배자가 아닌 풍성한 관계를 맺으시는 공동체적 존재이시듯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고독한 주체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와 생명을 장려하는 상호성 속에서 그 본질을 드러낸다. 고립 · 은둔 청년들의 실존은 자립이라는 근대적 이상이 망각해 온 피조적 한계와 상호의존성을 가시화하며 개별적 부분을 넘어 창조 공동체 전체가 반영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상기시킨다.[24] 이들의 취약함을 긍정하는 것은 주체의 불능 상태를 단순한 병리적 징후로 규정하는 시각을 넘어 생명의 관계 그물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자 성과사회를 전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재인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제 사회적 장애 아래 놓인 청년들은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공동체 전체에 환기시키는 타자의 얼굴로서 현존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자립적 개인의 신화를 해체하고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복권시키는 신학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존재론적 전회는 관계적 존재의 원형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구조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야 한다.

---

23) 위의 책, 126.
24) 위의 책, 137-138.

www.kci.go.kr

2.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사귐: 고립을 넘어서는 관계적 존재론

성과사회가 양산한 고립과 은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자아 중심주의를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질에 기초한 존재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인간의 실존을 상호관계 속의 존재로 재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장애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사귐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1) 사귐의 공간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일방적인 군주적 지배가 아닌 위격 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귐에 기초한다.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는 단일자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 자신을 제한함으로써 존재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자신을 절대적 무에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분적으로 부정하심으로써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을 마련하신다.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자기 제한의 사랑은 성과를 기준으로 인간의 등급을 매기는 서열화된 사회 구조를 해체하며 모든 생명이 존재 자체로 사귐의 주체가 되는 평등한 공동체의 원형을 제공한다.[25]

청년들이 겪는 고립과 은둔의 실존적 위기는 신적 사귐으로부터 이탈하여 생명의 영이 차단된 본질적 생명력의 위기로 규정되어야 한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와 상호 내주를 통해서만 참된 실존을 구현하는 관계적 실재이며 관계의 단절은 존재론적 위협으로 작용하여 생명의 위축을 초래한다. 따라서 창조주가 창조를 위해 자신의 공간을 비워주신 자기 제한

25) 위르겐 몰트만, *Trinitat und Reich Gottes*, 김균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b), 137-140; 이창호,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와 평화윤리를 위한 규범적 함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61(2025), 326-327.

www.kci.go.kr

의 사랑을 본받아 폐쇄된 자아의 경계를 열어 타자의 자리를 확보하는 사귐의 회복은 고립된 주체가 하나님의 생명적 역동 안으로 다시 진입하게 하는 신학적 해법이 된다.

2)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타자를 위한 존재론적 공간

삼위일체 위격 간의 상호 내주를 의미하는 페리코레시스는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신적 위격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성과 교제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핵심적 원리이다. 하나님의 통일성을 단일적 주체의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닌 상호 평등과 상호성에 기초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규정하는 이 원리는 고립의 장벽을 해체하는 강력한 신학적 토대가 된다.[26]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자리를 비워줌으로써 서로 안에 거하는 신적인 삶의 비전에 상응하듯 참된 인간 생명은 자신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론적 내면의 공간을 확보할 때 비로소 발현된다. 이러한 상호 내주의 원리는 자기중심적 성취를 지향하는 성과사회의 인간론과 근본적 대조를 이루며 인간 실존의 본질이 개별적 소유나 업적이 아닌 공동체적 머묾과 나눔에 있음을 보여준다.

성과사회의 자아는 타자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닫힌 자아인 반면, 페리코레시스적 존재는 타자의 현존이 자기 존재를 완성하는 필수 조건임을 전제한다. 성령의 생명력은 자기 착취적 가속을 멈추고 주체를 타자와의 공명으로 인도하여 고립된 실존이 보다 넓은 사귐의 지평에 참여하게 한다.[27] 결국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기능의 수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호 내주 원리 속에 그들의 고통스러운 실존이 연결되

26) 신옥수,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장신논단」30(2007), 205-206.
27) 이창호, "몰트만의 사랑 윤리," 307.

www.kci.go.kr

어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3) 상호의존성과 취약함의 공동체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독립적 자아라는 근대적 신화를 해체하고 인간의 본질적 상호의존성을 생명의 핵심 원리로 격상시킨다. 삼위의 위격이 서로 없이는 하나님일 수 없듯이 인간 역시 타자 없이는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취약함과 의존성은 배제의 근거가 아니라 존재들을 유기적으로 결속시키는 공동체적 사귐의 신비가 된다.[28] 또한 사회적 장애 상태에 놓인 이들의 약함은 사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성과주의가 망각한 상호의존적 존재의 가치를 공동체에 환기하는 은혜의 통로로 재해석된다.

생명의 충만함은 개별 주체의 완전함이 아닌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유기적 관계망 속에서 실현된다. 이러한 관계적 전회는 고립과 은둔을 공동체적 위기로 인식하게 하며 배제된 실존들을 공동체의 품으로 가시화하는 공적 환대의 당위성을 부여한다.[29] 따라서 교회는 성과사회에 가로막힌 이들이 안전하게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단절된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는 거점이자 신학적 저항을 실천해야 한다.

3. 신학적 저항: 안식, 축제, 성소

생명 신학적 원리가 성과사회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구체적 저항으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안식, 축제, 성소라는 세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세 개념은 각각 시간적 저항(안식), 존재론적 저항(축제), 공간적

28)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윤리』, 249-250.

29) 김상덕,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공공신학 - 공감과 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288-289.

www.kci.go.kr

저항(성소)의 차원을 담지한다.

1) 안식: 시간적 저항

성과사회의 핵심 동력은 끊임없는 행위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는 가속의 문법이다. 기계적 시간은 각자의 삶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며 모든 시간을 단조롭고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다.[30] 그러나 안식은 단순한 노동의 중단을 넘어 인간을 효율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세속적 시간관에 대한 탈가속화로 작용한다. 몰트만의 창조론적 지평에서 안식은 피로에 의한 정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기능적 산출 없이도 창조주와의 사귐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하려는 존재론적 긍정이다.[31]

안식의 영성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를 장애나 낙오로 규정하는 가치관에 대한 근원적 거부이며 시간 속에 세워진 거룩한 성소를 통해 주체를 해방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멈춤은 긍정성의 과잉으로부터 야기되는 영적 소진을 해소하고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수용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안식은 이처럼 고립된 주체가 세속적 시간(크로노스)의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카이로스)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존재론적 여백을 마련한다.

2) 축제: 존재론적 저항

성과사회의 윤리가 공로와 보상에 기반한다면, 축제는 은혜와 기쁨의 논리를 선포한다. 축제는 인간의 유용성을 묻지 않으며 살아있음 그 자체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근간으로 한다. 몰트만

30) 위르겐 몰트만,『희망의 윤리』, 277.

31) 위르겐 몰트만,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133.

www.kci.go.kr

의 주장대로 이러한 안식의 기쁨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다.[32]

축제의 영성이 고립 · 은둔 청년 문제에 지니는 고유한 의미는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향유자로 격상시킨다는 데 있다. 성과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은 축제의 자리에서 조건 없이 환대받으며 사귐이 의무가 아닌 근원적 기쁨임을 실존적으로 경험한다. 축제는 공로주의가 상실시킨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인식하게 하는 관계적 전회를 가능하게 한다.

3) 성소: 공간적 저항

신학적 사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립된 주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성소적 공간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이 공간론적 요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시 자신을 제한하여 타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신 침춤의 원리에서 신학적 근거를 확보한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단일자가 아니라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비워주시는 환대자이다. 이러한 공간 이해는 고립된 청년들의 취약성이 보호받으면서도 타자와 연결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요구한다.[33]

참된 사귐의 공간은 물리적 건축물의 점유를 넘어 주체 간의 상호 내주가 일어나는 관계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거나 대면 사귐에 장벽을 느끼는 이들에게 신학적 성소는 고립된 공간조차 하나님의 생명력이 침투하는 사귐의 현장으로 변모시켜 고립된 생명이 공동체적 사귐의 본류로 진입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통로가 된다.

32)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윤리』, 408-410.
33) 신문궤, "몰트만 신학에 나타난 침춤론," 「신학과 목회」 39(2013), 402.

www.kci.go.kr

4) 디지털 환대의 필요성

안식, 축제, 성소의 신학은 성과사회의 업적 율법에 저항하는 강력한 해방의 논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실제 고립된 청년들의 삶에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매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은둔형 청년들은 이미 물리적 공동체의 결속이 와해된 환경 속에서 핵가족화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각자의 방이라는 제한된 장소에 고착되어 있다.[34] 이들에게 기존의 대면 중심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환대는 도리어 그 높은 문턱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폭력적 요구로 다가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폐쇄된 세계관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디지털 환대'의 기획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공간은 익명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고립된 주체가 심리적 안전감을 유지한 채 타자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성소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환대는 고립 청년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던 의료적 모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적 사귐 안으로 단계적으로 진입하게 돕는 사회적 칭의의 실천적 통로가 된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디지털 환대 사역의 실천 방안을 호주의 디지털 건강정신 서비스 플랫폼의 사례를 들어 논의하고자 한다.

34) 오재호,『청년의 고립·은둔, 진단과 대책』, 1-3.

www.kci.go.kr

IV. 호주 'Head to Health' 모델의 신학적 적용[35]과 한국 교회의 과제

1. 성육신적 디지털 환대

1) 디지털 성육신[36]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비천한 자리로 임하신 궁극적 낮아짐의 사건이다. 이 원리는 자신의 방에 은둔한 청년들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방향성을 규정한다. 디지털 공간으로의 진입은 타자가 처한 가장 낮고 고립된 자리로 직접 찾아가려는 성육신적 결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37]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에 갇히지 않으며 고립된 자가 거하는 디지털 환경조차 하나님의 생명력이 현존하는 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대는 찾아오는 이들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를 넘어

35) 호주 모델의 신학적 전유는 규범적 이식이 아닌 시스템 내재 원리를 신학적 가치와 연결하는 구조적 유비이다. 이는 단계적 케어의 효율성을 단계적 환대의 신학적 목적에 대응시켜 현대 제도와 소통하며 사역의 실천적 가시성을 확보하려는 공적 신학의 방법론적 시도이다.

36) 전통적 교회론이 견지해온 물리적 실재성과 장소성에 근거한 신앙의 진정성이 디지털의 가상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적 우려는 마땅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역사하시는 존재의 편재성을 가상 지평에서 실현함으로써 실존과 현존의 간극을 좁히고 신적 초월성을 현재화하는 필연적인 신학적, 선교적 응답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완수하기 위해 교회가 취해야 할 현대적 자기 비움의 실천이 된다. 또한 성령의 자유로운 역동성에 기초하여 물리적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고립 청년들의 복합적 실존을 온전히 포용하고 치유하는 단계적 성소를 구축하기 위한 본질적인 교회론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 Duglus Estes, ***SimChurch: Being the Church in the Virtual World*** (Grnad Rapids: Zondervan, 2009); Guichun Jun, "Virtual Reality Church as a New Mission Frontier in the Metaverse: Exploring Theological Controversies and Missional Potential of Virtual Reality Church," ***Transformation*** vol. 37 (2020).

37) 성석환, "교회론의 디지털 실존적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 연구: 디지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향하여," 『선교와 신학』 55(2021), 171.

www.kci.go.kr

고립된 자의 실존적 현장으로 먼저 내려가는 능동적 낮아짐의 실천이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취약함 속으로 자신을 투사하신 것과 같이 교회가 배제된 이들의 언어와 공간 속으로 자신을 낮추어 동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낮아짐은 고립 청년들에게 교회를 요구하는 집단이 아닌 함께 머무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하는 신뢰의 토대를 형성한다.

2) 자기 비움의 공간 설계와 환대의 개방성

참된 디지털 환대는 플랫폼의 주도권을 교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취약함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 앞서 고찰한 침춤의 원리는 디지털 플랫폼이 지향해야 할 공간 설계의 신학적 전형을 제시한다. 디지털 성소는 교회의 교리나 실적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고립된 주체가 약함과 고독을 있는 그대로 노출해도 안전한 비워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영적 사귐은 자아의 경계를 열고 타자를 향해 개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로 나아간다.[38] 이러한 공간 설계는 성과사회의 감시와 평가가 제거된 안전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장애를 입은 청년들이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한다. 환대는 자신의 공간을 타자의 거처로 내어주는 낮아짐의 행위이며 디지털 환경은 무조건적 수용의 원리를 가장 낮은 문턱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신학적 잠재력을 지닌다.

3) 비대면 사귐의 신학적 정당성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귐이 신학적으로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세 가지

38) 김승환, "종교의 디지털 전환과 가상현실 공간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기독교사회윤리」62(2025), 303-305.

www.kci.go.kr

차원의 신학적 정당성을 논증할 수 있다.

첫째, 성령론적 근거이다. 성령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지체들을 하나의 유기적 생명망으로 연결하는 사귐의 영이다. 교회의 참된 진정성은 인간이 구축한 제도적 권위나 역사적 장소성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주도적인 임재 속에서 확보된다. 성령은 과거의 형식이나 물질적 유산에 고착되지 않는 자유로운 새 창조자이시다. 이러한 성령의 자유로운 역동성은 가상과 실재가 중첩되는 디지털 실존의 특수성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신학적 지평을 열어준다.[39] 따라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격적 교류 역시 성령의 현존 안에서 영적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성서적 유비이다. 비대면 소통은 대면이 불가능해진 이들에게 제공되는 성육신적 통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닫힌 문 안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전하셨던 사건(요 20:19-21)과 유비적 관계에 있다. 물리적 장벽이 하나님의 현존을 차단하지 못했듯이, 디지털이라는 매개 역시 인격적 사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

셋째, 목회적, 선교적 당위의 차원이다. 디지털 공간은 고립 · 은둔 청년들이 타자와의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실한 문턱이다. 모든 형태의 사귐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디지털 공간 안에서 사귐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목회적 책임의 영역이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 환대는 장차 도래할 물리적 현존을 현재 속에서 선취하게 하는 메시아적 차원의 공간이자 고립된 실존이 하나님의 생명적 역동 안으로 단계적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선교적 기능을 수행한다.[40]

다만 이러한 정당화는 비대면 사귐이 대면과 동등하다는 주장이 아니

39) 김균진, 『기독교신학 4: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신학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174-175.

40)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윤리』, 88-89.

www.kci.go.kr

라 대면이 차단된 상황에서의 차선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유효한 대안이라는 제한적 주장이다. 디지털 환대의 궁극적 지향은 점진적으로 물리적 현존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성육신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환대는 교회가 성과사회에 상처 입은 생명들로 하여금 생명의 영을 호흡하게 하는 구원론적 실천이 된다. 교회가 자신의 물리적 중심성을 내려놓고 디지털이라는 낮은 곳으로 진입할 때, 고립된 주체들은 비로소 성과의 압박이 없는 안식과 사귐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41]

2. 디지털 환대의 사례: 호주 'Head to Health' 모델의 신학적 성찰

성육신적 디지털 환대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호주 'Head to Health'의 시스템적 구조를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전유한다. 이 과정에서 세속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교회의 영적 돌봄 사이의 범주적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양자가 공유하는 구조적 원리를 추출하여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1) 호주 'Head to Health'의 시스템적 구조

'Head to Health'는 파편화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중앙 게이트웨이(Central Gateway)형 구조를 지닌다. 사용자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고 적합한 지원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적 케어 모델을 근간으로 운영되며 복잡한 의료 체계 탐색의 심리적, 정보적 장벽을 제거하여 정신건강 지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핵심 기제이다.[42]

41) 곽한영, "면역적 공동체로서의 예배: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동체성과 경계 재구성,"「설교한국」23(2026), 106.

42) 어유경,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국제사회보장리뷰」16(2021), 7-9; 박나영 · 전진아,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국제사회보장리뷰」28(2024), 39-43.

www.kci.go.kr

플랫폼의 운영 구조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개방과 탐색의 단계로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추천서 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정책을 견지한다. 둘째, 맞춤형 자가 평가 및 매칭의 단계로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최적의 자원을 제안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가 진단 도구를 탑재하고 있다. 일례로 이 플랫폼은 사용자가 불안 등의 특정 증상을 검색할 경우 자가 진단 과정을 거쳐 온라인 치료 프로그램이나 셀프 헬프 앱(self-help apps) 등 맞춤형 자원을 단계별로 매칭한다. 셋째, 통합적 서비스 연결 단계로 지역 사회의 오프라인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실제 방문 가능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43]

이 모델은 정부와 민간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을 통해 단절 없는 케어(Seamless Care)를 실현하며 750여 개 이상의 외부 기관 서비스를 집약하여 명확한 지원 경로를 제시한다.[44] 특히 플랫폼 내 자가 진단 도구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초기 단계에서 인식하도록 돕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유연한 추천 기능을 통해 필요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체계는 단계적 케어의 원리를 디지털 지평에서 구현하여 낮은 수준의 지원부터 전문적 치료까지 포괄하는 지지 구조를 형성하며 기술적 편의성을 넘어선 심리적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Head to Health'는 디지털 공간이 단순한 정보망을 넘어 고립된 주체를 사회적 지지망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환대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한다.

43) 김소미, "청년 고립 · 은둔 문제와 대응방향," 「복지이슈 투데이」 139(2024), 16.
44) 호주 보건복지부, (2024), "Head to Health: Mental health support," https://www.medicarementalhealth.gov.au/, (접속일: 2026. 03. 13.).

www.kci.go.kr

2) 신학적 전유: 환대의 공간으로의 재해석

호주 모델의 시스템적 특징을 한국 교회의 맥락에서 신학적으로 전유하는 작업은 세속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조적 원리를 사귐의 신학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1) 무조건적 환대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정책은 어떠한 행위나 자격 조건 없이 존재 자체를 용납하는 무조건적 환대의 실천적 구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과 사회는 주체에게 자신의 가용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적 사귐으로부터의 배제를 가한다. 그러나 어떠한 진단이나 추천서 없이도 진입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주체가 결함을 증명할 필요 없이 존재 자체로 영접받는 은총의 장이 된다. 이는 앞선 장에서 논의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수용과 창조 안식의 원리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시화된 것이며 고립된 주체가 자신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노출할 수 있는 존재론적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2) 단계적 케어와 침춤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매칭하는 단계적 케어 모델은 하나님의 침춤 원리와 구조적 유비 관계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율적 실존을 위해 자신의 절대적 편재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하나님 안의 빈 공간을 마련하신 것과 같이 디지털 환대 역시 교회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 사용자의 현재 속도와 역량에 맞춰 사귐의 자리를 점진적으로 내어주는 능동적 낮아짐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

이때 디지털 성소는 단순히 세속의 기술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안에서 고립된 타자를 위해 확보된 자유의 영역

www.kci.go.kr

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느슨한 연결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이 방식은 타자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격적으로 조우하려는 성령의 역동적 이끄심과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이는 주체를 시스템의 목적에 맞춰 강제로 개조하려는 기능적 접근에서 벗어나 고립된 영혼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환대하며 기다리는 성육신적 실천이 된다.

(3) 게이트웨이(Gateway)로서의 디지털 성소

분절된 지원 체계를 단일한 접점으로 집약하는 게이트웨이 구조는 파편화된 실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으로 연결하는 관계적 특징과 그 결을 같이한다. 정보의 과잉 속에서 방향을 상실한 고립 청년들에게 명확한 사귐의 경로를 제시하는 플랫폼은 선교적 가교로서의 가치를 지닌다.[45] 디지털 공간은 단순히 비대면의 기술적 장이 아니라 성과사회의 장벽에 가로막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환대가 가시적으로 전달되는 매개로서의 의미를 확보한다. 결국 호주 모델의 신학적 전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상호의존적 존재의 원리를 복원하고 고립된 청년들을 사귐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실천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디지털 환대의 실재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면 사귐의 온기를 신앙의 핵심으로 여겨 온 기독교 전통을 고려할 때, 비대면 환경의 피상성과 현존의 결여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 화면 너머의 소통이 실존적 고독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비판은 인격적 만남의 무게감을 환기하는 정당한 신학적 성찰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의 자각은 역설적으로 어떠한 사귐도 허락되지 않은 고립 청년들을 향한

45) 김승환, "종교의 디지털 전환과 가상현실," 313.

www.kci.go.kr

성육신적 낮아짐의 필연성을 재조명한다. 비대면 소통은 대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이 차단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성령의 가시적 통로로서 정당성이 확보된다.

디지털 사귐은 주체의 고유한 서사를 경청하고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맥락을 복원하는 치유적 기능을 수행하며 고통받는 자들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디지털 환대는 페리코레시스를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여 고립된 생명이 타자와 공명하도록 돕는 신학적 과정이 된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사역이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공적 환대 플랫폼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한국 교회의 맥락에 적용하여 단계적 환대의 실천적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한국 교회를 위한 실천적 제언: 단계적 환대 모델의 구축

단계적 환대 모델은 고립된 주체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삼위일체적 사귐으로 인도하는 실천적 경로가 될 수 있다. 각 단계는 3장에서 확립한 안식(1단계), 축제(2단계), 성소(3단계)의 신학적 원리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구성된다.

1) 1단계: 낮은 문턱의 디지털 안식처

환대의 첫 단계는 무조건적 수용의 진입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성과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자기 증명의 의무를 면제하고, 신앙적, 사회적 자격 조건 없이도 존재 자체를 용납하는 공간적 실천이다. 하나님의 창조 안식이 피조물의 공로 이전에 주어지는 선행적 은총이듯 디지털 공간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 무조건적 수용의 공간이어야 한다.

www.kci.go.kr

교회의 디지털 플랫폼은 주체의 결함을 진단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머물 수 있는 존재론적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 주체는 플랫폼에 접속하는 순간 성과를 내는 자의 가면을 벗고 사랑받는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환대는 성과사회의 가속을 정지시키는 안식의 예전으로 기능해야 한다. 몰트만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의 면전에서 안식에 이르시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들과 함께 전적으로 그들 안에 임재(내주)하신다."[46] 안식함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기계적 시간의 탈 가속화를 통해 대안적 시간성으로서의 카이로스를 누리도록 안내한다. 침묵 기도나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콘텐츠, 짧은 영상 묵상, 감정 기록 일기나 익명의 마음 고백 서비스 등 오픈 도어 접근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는 고립 · 은둔 청년들을 가상 세계로 초대하는 디지털 성소가 될 수 있다.[47]

이 단계에서 교회는 사용자를 교인으로 전환하거나 환자로 규정하지 않는 무조건적 환대를 견지해야 하며, 고립된 주체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머물 수 있는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2) 2단계: 느슨한 디지털 사귐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공간의 안식을 통해 확보된 존재론적 안전지대를 기반으로 고립된 주체가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느슨한 연결의 사귐을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 사귐은 물리적 침범 없이도 내면이 공명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사귐을 연습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 공동체의 집

46)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윤리』, 405.
47) 김승환, "종교의 디지털 전환과 가상현실," 312.

www.kci.go.kr

단 중심적 압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실천으로 타자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결감을 형성하는 현대적 사귐의 양식과 궤를 같이한다. 비대면 만남은 성과사회의 시각적 압박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진입장벽을 우회하여 고립된 주체가 심리적 안전감을 유지한 채 자신의 삶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부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의미 형성의 장이 된다.[48]

구체적으로 익명 커뮤니티는 성과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고통의 서사를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존재의 연대를 확인하는 공간이 된다.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공간 역시 물리적 노출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인격적 교류를 제공하는 대안이 된다. 고립된 주체의 아픔이 타자의 공감 속에 머물고 타자의 위로가 주체의 내면에 깃드는 이러한 상호적 교류는 상호의존적 존재의 원형을 복원하는 치유적 실재성을 지닌다.

교회의 사역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나 상태를 개선하려는 치료자가 아니라 고립된 자의 곁에 머물며 그들의 존재를 지지하는 페리코레시스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호주 모델의 동료 지원(Peer Support)를 교회 현장에 적용하여 비슷한 고립의 경험을 극복했거나 깊은 공감 능력을 갖춘 디지털 동반자(Digital Companion)를 배치할 수 있다.[49] 몰트만의 창조 윤리에서 주장하듯이 사역자는 중심적 권위를 해체하고 모든 피조물을 동일한 하나님의 계약의 동반자로 인정하며 상호 간의 삶을 지탱하는 책임을 지녀야 한다.[50] 이들은 전문가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1 비대면 채팅을 통해 청년의 일상을 경청하고 존재를 지지하는

48) 구선아 · 장원호,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취향공동체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57(2020), 70.

49) 어유경,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7.

50) 위르겐 몰트만,『희망의 윤리』, 259.

www.kci.go.kr

역할을 수행한다. 사역자의 낮아짐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감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며 이러한 관계적 신뢰는 3단계인 물리적 공동체와의 통합을 준비하는 영적 토대가 된다.

3) 3단계: 하이브리드 환대

단계적 환대의 최종 목적지는 실제 지역 공동체의 지체로서 물리적 사귐에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환대(Hybrid Hospitality)의 실현이다. 호주 모델이 디지털 게이트 웨이를 통해 대면 상담 및 전문 의료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와 대응한다.

이 단계의 신학적 근거는 몰트만 생명 신학의 핵심적 지향에서 확보된다. 몰트만에게 성령은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영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생명의 고양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영이다. 따라서 디지털 사귐은 구체적인 육체적 현존의 사귐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한다.

지역 교회는 성과사회의 경쟁적 시선과 평가가 소거된 존재론적 중립지대를 구축하여 청년들을 영접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유 거실이나 사물을 매개로 느슨한 사귐을 연습하는 치유 공방과 같이 고립된 주체가 심리적 저항 없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의 형태를 띨 수 있다. 디지털에서 형성된 낮은 문턱의 경험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 때, 주체는 자신의 취약함이 물리적 공동체 안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결정적 열쇠는 2단계에서 신뢰를 쌓은 디지털 동반자의 지속적 동행에 있다. 호주 모델이 사용자 중심의 연속적 케어를 지향하듯 교회의 사역자들 역시 디지털에서 나눈 인격적 교감을 바탕으로 청년의 속도에 맞춰 오프라인으로의 발돋움을 도와야 한다. 사역자가 청년의 방 안으로 디지털 신호를 보내며 시작된 낮아짐의 사역은

www.kci.go.kr

이제 청년의 손을 잡고 공동체의 사귐으로 안내하는 직접적 환대로 확장된다. 사역자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겸비함을 유지하며 청년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수용될 때까지 페리코레시스적 인내로 동행해야 한다.

호주 모델이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정신건강 거버넌스를 전제로 한다면 공적 지원 체계가 파편화된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는 이를 보완하는 신앙적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립 청년들이 공적 기관보다 종교 공동체의 문턱을 심리적 안식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교회는 호주 모델의 시스템적 지혜를 수용하되 복음적 돌봄과 인격적 동행이 결합된 한국형 단계적 환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간은 성육신적 환대의 가교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익명성 뒤에 숨은 주체의 죄성과 피상적 관계라는 한계를 지닌다. 디지털 성소는 결코 인간의 실존적 고립을 완전히 해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며, 도리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임시로 지탱하는 메시아적 예표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모델이 모든 고립 청년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각 단계 간의 전이는 심리적, 영적 준비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역행이나 정체 역시 환대의 과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 모델의 실현은 개별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에 따라 편차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은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현대 한국 사회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과 은둔의 위기를 사회적 장애로 재정의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교회의 실천적 대안으로서 단계적 환대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고는 청년들의 고립 현상을 개인적 병

www.kci.go.kr

리가 아닌 환경적 장벽에 의한 구조적 소외로 규정하는 한편 사회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온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생명력의 위기가 그 본질에 내재해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몰트만의 생명 신학적 기틀을 빌려 성과 중심적 인간론을 전복하고 고립된 주체의 회복을 위한 존재론적, 관계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칭의론의 사회적 확장, 생명의 영에 의한 존재 긍정, 페리코레시스에 기초한 관계적 존재론을 고찰하였으며 안식과 축제, 성소라는 신학 개념을 통해 성과사회의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는 해방의 논리를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몰트만의 생명 신학적 통찰을 호주의 'Head to Health' 모델과 접목하여 구체적인 단계적 환대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호주 보건 모델의 시스템적 장점을 신학적 개념과 유비적으로 대응시켜 1단계(낮은 문턱의 디지털 안식처), 2단계(느슨한 디지털 사귐), 3단계(하이브리드 환대)로 구성된 실천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공간을 단순한 기술적 매체가 아닌 하나님의 환대가 현존하는 성소적 가교로 재정의함으로써 파편화된 실존을 삼위일체적 사귐으로 견인하려는 공적 신학의 실천적 제언이다.

본 논문의 학술적 함의는 고립 · 은둔 청년이라는 중층적 사회 현상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생명 신학의 가치를 구체적인 사역 현장에 구현할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몇 가지 학술적, 실천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단계적 환대 모델이 청년들의 영성 형성과 신앙적 회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부재하다. 특히 디지털 사귐이 제공하는 느슨한 연결이 피상적 위로에 머물러 복음의 근원적 도전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질적 · 양적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호주 모델이 정교한 임상적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단계를 조정하는 것과 달

www.kci.go.kr

리 교회의 환대 모델에서 단계 전환을 결정할 구체적인 신학적, 목회적 기준 설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 개별 공동체의 인적, 물적 자격 격차에 따른 실행 가능성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지역 교회 간 혹은 교단별 협력을 전제로 한 공유형 디지털 환대 모델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대의 실천이 복음 선포의 고유성을 희석하지 않으면서도 고립된 주체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으로 인도하는 접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교회 현장의 세밀한 응답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단계적 환대 모델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고립된 청년들의 실존적 현장에 먼저 다가가는 공적 환대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모델이 성과사회의 높은 장벽 앞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존재 자체로 환대받으며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실천적 복음의 경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수돌. “성과사회, 자기착취, 그리고 피로사회.” 「뉴 래디컬 리뷰」 52(2012), 275-283.

곽한영. “면역적 공동체로서의 예배: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동체성과 경계 재구성.” 「설교한국」 23(2026), 79-113.

구선아 · 장원호.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취향공동체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57(2020), 65-89.

김균진. 『기독교신학 4: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신학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김상덕.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공공신학 - 공감과 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263-292.

김성아 외. 『고립 ·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김소미. “청년 고립 · 은둔 문제와 대응방향.” 「복지이슈 투데이」 139(2024), 10-15.

김승환. “종교의 디지털 전환과 가상현실 공간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293-322.

김아래미 · 이해님 · 노혜진. “청년 사회적 고립의 유형화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 52(1)(2025), 187-218.

김진희 · 김용득. “장애 당사자 인식은 의료(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가?: 장애인 실태조사의 관련 변수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1(2023), 203-225.

김태형. “삶의 희망과 의미 발견에 대한 목회상담적 의의: 몰트만과 프랭클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5-1(2024), 9-39.

박나영 · 전진아.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국제사회보장리뷰」 28(2024), 37-49.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 2023.

성석환. “교회론의 디지털 실존적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 연구: 디지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향하여.” 「선교와 신학」 55(2021), 153-184.

www.kci.go.kr

신문궤. “몰트만 신학에 나타난 침춤론.”「신학과 목회」39(2013), 387-420.

신상준.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도시연구」28(2025), 63-102.

신옥수.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장신논단」30(2007), 203-239.

어유경.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국제사회보장리뷰」17(2021), 116-126.

오재호.『청년의 고립・은둔, 진단과 대책』. 수원: 경기연구원, 2023.

오재호・이지은・김태옥.『의정부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2025.

이상인 외.『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1.

이신복・이새봄. “대학생의 장애 인식이 장애인 관련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의 매개적 역할.”「인문사회과학연구」33(3)(2025), 455-475.

이창호.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와 평화윤리를 위한 규범적 함의 모색.”「기독교사회윤리」61(2025), 305-338.

최성수.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론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모색으로서 안식일 개념에 대한 연구.”「신학논단」74(2013), 201-231.

한병철.『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Estes, Douglas. *SimChurch: Being the Church in the Virtual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2009.

Jun, Guichun. “Virtual reality church as a new mission frontier in the metaverse: exploring theological controversies and missional potential of virtual reality church.” *Transformation* 37-4(2020), 297-305.

Moltmann, Jürgen. *Der Geist des Lebens*. 김균진 역.『생명의 영: 총체적 성령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Moltmann, Jürgen. *Der Geist des Lebens*. 김균진 역.『생명의 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Moltmann, Jürgen. *Ethik der Hoffnung*. 이신건 역.『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Moltmann, Jürgen.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www.kci.go.kr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Moltmann, Jürgen. *Trinität und Reich Gottes*. 김균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고립 · 은둔 해법은 영적 회복… 교회가 발견 · 사역을'. 『국민일보』. 2024년 11월 25일자.

논문투고일: 2026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15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성과사회의 구조적 배제 속에 놓인 고립 · 은둔 청년의 위기를 개인적 병리가 아닌 환경적 장벽에 의한 사회적 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교회의 실천적 대안으로 단계적 환대 모델을 제안한다. 장애학의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이 진단은 고립과 은둔 현상의 원인을 사회 구조의 결함으로 전환하며 세속적 기능 회복 모델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생명력의 위기라는 신학적 차원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위르겐 몰트만의 생명 신학을 중심으로 칭의론적 존재 긍정과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론을 고찰하여 고립된 주체를 위한 존재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나아가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인 'Head to Health' 모델과 유비적으로 접목하여 무조건적 수용의 디지털 안식처와 익명의 느슨한 사귐을 거쳐 최종적으로 물리적 공동체로 연계되는 점진적 실천 로드맵을 설계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공간을 하나님의 환대가 현존하는 성소적 가교로 재정의함으로써 성과사회의 파편화된 실존들을 삼위일체적 사귐으로 초대하는 공적 신학의 실질적 경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성과사회, 고립 · 은둔 청년, 사회적 장애, 몰트만, 생명 신학, 단계적 환대, 호주 Head to Health

www.kci.go.kr